



## 사노피, 예비 CRA를 위한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교육과정’ 개최

- 서울성모병원 본관에서 8월 20-21일 양일간 진행
- 현업 선배들이 직접 신약 개발 및 임상시험 진행 관련 지식과 경험담, 네트워킹 기회 제공
- CRA를 꿈꾸는 대학(원)생은 6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참여 가능



2015년 6월 15일, 서울 - 세계적인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국내 제약사업부문인 주식회사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 이하 ‘사노피’)는 오는 8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예비 CRA를 위한 ‘제 9회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교육과정’을 서울성모병원 본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상 연구 세계로의 즐거운 여행 (Bon Voyage to The Clinical Research World)’라는 부제의 본 과정은 국내 R&D 전문인력의 조기양성 및 국내 임상시험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노피가 매년 국내 유수의 임상시험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총 350명이 넘는 간호대학, 약학대학, 보건의료대학, 수의학, 의과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들이 참여했으며, 올해에도 50명의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국내 대표적인 CRA(임상시험 담당자, Clinical Research Associate) 양성 과정으로 자리매김한 본 과정에서는 하나의 신약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에서의 국내 임상연구 현황과 관련 법규를 비롯 R&D, CSU(임상연구부, Clinical Study Unit), 의학부 등 유관 부서의 역할과 협력 사례가 생생하게 소개된다. 또한, 현재 사노피에서 CRA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선배와의 진로 상담 시간도 마련된다.

사노피 임상연구부(CSU)의 박영주 상무는, “혁신 신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CR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사노피가 9년째 진행하고 있는 본 교육 과정이 예비 CRA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과정 둘째 날 진행될 조별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간접적으로나마 CRA의 업무를 맞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RA 교육 과정에 관심이 있는 관련 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누구나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노피 홈페이지([www.sanofi.co.kr](http://www.sanofi.co.kr))에서 교육과정 참가 신청서(이름, 소속 학교, 연락처, 참가 동기 등)를 내려 받아 관련 정보를 기입한 후 6월 30일까지 이메일([chami.moon@sanofi.com](mailto:chami.moon@sanofi.com))로 보내면 된다. 본 교육 과정은 이틀간 무료로 진행된다.